

손소독제·핸드워시 판매 ↑ ...새 효자템 등극

마스크 사용으로 화장품 소비 감소
해피바스 '브이 프로젝트' 라인 출시
애경 '랩신', 단기간에 시장 안착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브이 프로젝트'(왼쪽)와 애경산업 '랩신'의 손소독제.



롯데홈쇼핑 모바일 방송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손소독제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뷰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위생용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황에 빠진 뷰티업계가 위생용품 사업 확대를 위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외출 자체가 줄었고,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사용해 기존 대비 화장

품 판매량이 감소했다. 반면 손소독제와 핸드워시 등 위생용품 판매량은 늘고 있는 상황에 착안했다.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는 손소독제 젤과 향균 버블 핸드워시로 구성된 '브이 프로젝트' 라인을 출시했다. 손소독제 젤은 상큼한 라인향에 녹차 추출액과

알로에 베라를 함유했다. 45ml 용량과 400ml 대용량으로 판매한다. 또 향균 버블 핸드워시는 250ml, 500ml 2종과 리필형 파우치 200ml, 400ml 2종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말 론칭한 애경산업의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도 주목받고 있다. 마스

크, 손소독제, 손소독티슈 등으로 구성했다. 겨울과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았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시장에 안착한 경우다. 신규 브랜드의 경우 론칭 이후 마케팅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생각한 채 급격히 효자 브랜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기존 용량으로 판매하던 손소독제 '핸드 앤 네이처 세니타이저 젤'을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소독제를 대용량으로 출시해 달라는 고객 요청에 착안했다. 300ml 용량으로 기존 제품(30ml)보다 양을 10배 늘렸다. 특히 에탄올 함량을 높여 유해세균 제거 및 살균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제이존코스메틱은 녹차 성분과 글리세린의 보습 성분을 담은 손소독제 '메타셀 리프레시 세니타이저 젤'을, 더샘은 스프레이 타입의 손소독제 '클린 에브리데이 세니타이저 액'을 선보였다.
정정운 기자 jjay@donga.com

고객이 맡긴 부금 선수금 먹튀? '상조회사 먹는 하마' 사모펀드

프리드라이프·재향상조 등 잇단 매입
장례인도조 "상조사 매입중단" 촉구



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회사를 퇴짜를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상조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고객이 맡긴 부금 선수금을 탐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조업계 부금 선수금 규모 1조 원이 넘

는 업계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10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 파트너스에게 지분을 매각했다. 국내 대형 상조업체인 재향군인회 상조회도 라인과 연결된 회사에 지분을 매각했다가 보람상조에 재매각했다.
이처럼 대형상조회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되면 소위 '먹튀'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조업계의 위기여파가 팽배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은 고객이 납부한 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상재 전국장례인도동조합 위원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하나은행에 1560억 원 가량을 예치해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번의 매각 과정에서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라인투자 자금 및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 납입금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부금 선수금 100%환급의 의무를 저버린 먹튀 경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정운 기자 sadzoo@donga.com



롯데호텔제주 '헬로키티 패키지' 운영
롯데호텔제주는 '헬로키티 패키지'(사진)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2020 헬로키티 리미티드 에디션 인형, 3인 조식(어른 2, 어린이 1), 스무딩 튜브 등으로 구성했다. 패키

지에 포함된 헬로키티 리미티드 에디션은 롯데호텔과 일본 산리오사가 협업해 선보이는 캐릭터 인형으로 올해 테마는 발레리나다. '헬로키티 패키지'는 프린세스, 키즈, 레디스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5월 4일까지 휴장 연장
강원랜드는 16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서 카지노 영업장의 휴장을 5월 4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카지노를 제외

한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리조트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정책 등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장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월 23일부터 카지노가 휴장에 들어갔고 리조트 부문도 3월 2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김재범 기자

지 진행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20여 종의 선물세트(다보록) 및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토폴드', '화애락', '홍천옹', '홍이장군' 등 주요 인기 제품에 대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베스트셀러인 '홍삼정 플러스(240g)' 제품 2개 구매 시 '알파프로젝트 눈건강' 제품, 정관장 멤버스 가입 후 5만 원 이상 구매 시 '알파프로젝트 장건강' 제품을 추가 증정한다.
원성열 기자
팬진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17일(금) 음력: 3월 2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p>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여유분, 겨우 만족</p> <p>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강철처럼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욕구분출, 잠재력 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p>	<p>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p> <p>사람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능한 한 무리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야한다. 식전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성급한 판단으로 물건을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잘못써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p>	<p>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파도, 좌충우돌</p> <p>승진 운이 있으니 말마따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 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호랑이 날이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으니 서로 잡았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p>	<p>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p> <p>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 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망신일이다. 망신의 운은 잠깐 동안 누리는 복록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저라.</p>
<p>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비바람, 힘들다</p> <p>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레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먼 거리가 좋다. 해외업무나 출장 등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p>	<p>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p> <p>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는 매사가 성립되지 않는 법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간접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비우고 끈기 가지면 이롭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를 조심하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p>	<p>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노을, 인생무상</p> <p>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무리하게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출장길 일이 생기는데 출장의 결과가 좋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장차 진급하게 된다.</p>	<p>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장마, 차일피일</p> <p>이 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의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생각으로 처신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망신살에 귀문살이다. 망신살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격정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침착해야 한다.</p>
<p>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해, 번개, 갈등</p> <p>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이유는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착실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p>	<p>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싸늘, 외롭다</p> <p>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화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오늘은 겁살일이다. 장성이 겁살을 만났다. 도전적이 되며 호소심이 강해지고 쿠데타적 기질을 갖게 된다.</p>	<p>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p> <p>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화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화개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기운인데 지살을 만났으니 움직이게 된다. 학업, 문학, 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p>	<p>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혼란</p> <p>돼지도 호랑이도 서로 먼저 나서려는 기운이다. 사람들이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다.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만인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 오늘은 망신살일에 식상운이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오바할 수 있는 기운이다.</p>

경제

15

2020년 4월 17·18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날씨와 생활

17일(금)

서울 70/70	인천 70/60	수원 70/60
12 17	12 15	9 17
춘천 70/80	강릉 60/80	청주 70/70
8 16	9 15	11 18
대전 70/60	전주 70/60	광주 70/60
11 17	12 18	12 17
대구 70/80	울산 70/80	부산 70/80
10 17	10 16	12 17
창원 70/80	제주 70/70	지역 강수 확률 (안개/우)
10 16	14 20	날씨 최저 최고기온

☀ 해돋이 05:55 해질 19:09 🌙 달돋이 03:18 달질 13:39

산 날씨

북한산	10/17	내장산	10/17
설악산	8/14	무등산	9/16
오대산	9/16	주왕산	6/15
속리산	7/17	지리산	9/15
계룡산	8/17	한라산	15/18

바다 날씨

인천송도	12/15	인연도 꽃지	9/17
제주도	10/17	변신반도	11/18
경포대	9/15	거문도	10/16
속초	8/13	해운대	12/17
대전	9/18	제주도	14/20

미세먼지

서울	27	보통	대전	27	좋음
부산	21	좋음	울산	18	좋음
대구	18	좋음	경기	30	보통
인천	25	좋음	경북	19	좋음
광주	29	보통	제주	27	좋음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8일 서울경기	9/19	맑음	10/13	흐림	10/20
(토)	☀	9/19	맑음	11/19	驟
19일 서울경기	10/17	맑음	8/15	흐림	10/17
(일)	☀	10/16	맑음	11/16	驟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유료부수 2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361-1610

발행인	이인철	편집부장	안도영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부장	정재우
편집국장	연재호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광고국장	이승욱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인쇄	동아일보사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361-1616 so@donga.com